

설난영 여사의 사과는 개사과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는 어제 부산에서 “노조는 과격하고 세고 못생겼다”는 본인의 발언에 사과했습니다.

본인이 상처를 준 사람도 없는 자리에서 허공을 향하여 한번 해 본, 진정성 없는 사과입니다. 노동종합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노동현장도 아닌, 맥락 없는 곳에서의 그냥 형식적인 몇 마디 말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면서 형식적인 한 마디로 때우려는, 그야말로 말 뿐인 사과, 개사과 시즌2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사과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4년 전 김건희 여사는 허위경력 의혹에 머리 숙여 사죄했지만, 당선 후 김 여사가 국민에게 보여 준 것은 그야말로 무소불위, 신성불가침이었습니다.

경기도 예산 개입 의혹, 정치행사준비에 공무원 동원 의혹, 부부 외유 의혹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설 여사의 고작 몇 마디 사과에서 김건희 시즌2가 확연히 보입니다.

말 뿐인 형식적 사과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작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겠다면서 국민 앞에 선 김문수 후보가 설 여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SPC 사망사고가 여전한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노동운동을 했다가 자랑삼아 말하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노조가 없어서 감동을 받고, 정당한 노동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강변한 것이 김 후보의 민낯입니다. 김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으로 노동자의 피땀을 누리기만 해 온 정당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여전히 노조는 과격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터에서, 직장에서, 작은 일로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는 무시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식적 사과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민낯을 알고 싶습니다.

2025년 5월 27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